외국인 귀환 중심엔 반도체… 삼성·하이닉스 '폭풍 매수'

이달 들어 코스피 약 3.4조 순매수
실적 호조, 투자심리 회복 이끌어
AI 인프라 확대 따른 구조적 성장

ChatGPT로 생성한 '반도체 투톱인 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몰리는 투자자 수요' 관련 이미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에서 발을 뺐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반도체로 향하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들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조43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반도체 투톱은 합산 3조5000억원을 사들이면서 코스피 총 순매수 금액을 뛰어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은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외국인들이 몰려 들고 있다.

◆K-반도체주, 안보고 산다

자금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다. 이달 들어 외국인 순매수 1위는 SK하이닉스로 1조7814억원, 2위는 삼성전자로 1조720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과 정반대 흐름이다. 외국인은 지난달 삼성전자를 18조2438억원, SK하이닉스를 8조1492억원 순매도하며 각각 순매도 1·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외국인의 반도체 사랑은 ETF 매수세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이 약 60% 수준인 'TIGER MSCI 코리아 TR'을 5101억원 이상 순매수하며 투자를 집중했다. 유사한 구조의 'KODEX MSCI 코리아 TR'에도 약 912억원이 유입되면서 3번째로 많이 사들였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삼는 MSCI 지수를 추종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긴장이 고조됐던 중동 정세가 휴전 국면으로 접어든 데다, 삼성전자가 1개 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은 약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 755% 증가한 수치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로 메모리 탑재량이 늘면서 비용 부담을 충분히 상쇄하고 있고,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 저항도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37만610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5.5%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52만5763억원으로 198.1% 늘었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에 대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반영해 2026년 및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9%, 4% 상향 조정한다"며 목표가를 상향했다. 노무라증권은 2026년 영업이익 전망으로 올해보다 492% 증가한 280조원, 2027년은 2026년보다 36% 늘어난 379조원을 각각 제시했다.

◆외국인 매수세 이어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 투자 수요 증가 등 증시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여전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이어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예상과 다른 시장 흐름이 나타나면 외국인 매도세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역시 관건은 반도체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외국인 순매수의 대부분은 반도체 효과"라면서 "앞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될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경쟁이 격화되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는 평가다. 수요 측면에서 AI 가속기 성능을 좌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부품이 됐다.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이 메모리 수요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배경이다. 공급 구조 변화도 '메모리 병목' 현상을 만들었다. 공정 고도화와 HBM 중심 생산 전략이 맞물리면서 범용 디램 생산 여력이 줄었다. 제한된 생산라인에서 HBM 비중이 확대되면서 범용 디램(DRAM) 공급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2028년까지 만성적인 메모리 공급난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 목표주가는 25만~33만원, SK하이닉스는 130만~205만원 수준이다. 유안타증권은 삼성전자의 호실적과 SK하이닉스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되며 대형 반도체주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상장사 임원 보수, '성과표'와 함께 공개

금감원, 사업보고서 공시서식 개정
내달부터 임원 보수 현황 공시해야

앞으로 상장사는 임원 보수를 기업 성과와 함께 공시해야 한다. 보수의 적정성을 투자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가 대폭 손질된다.

금융감독원은 임원 보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서식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장사는 반기보고서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임원 보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수와 성과의 연결'이다. 기존에는 이사·감사 보수총액만 제시돼 기업 실적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주요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연도별 데이터를 나란히 비교하는 표 구조가 도입되면서, 투자자는 '성과 대비 보수' 수준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TSR을 포함한 점은 의미가 크다. 단순 이익이 아니라 주가 상승과 배당까지 반영한 지표를 통해 경영진 보상이 실제 주주가치와 얼마나 연동되는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내에서도 '페이 포 퍼포먼스(Pay for Performance)' 검증 체계가 도입되는 셈이다.

주식기준보상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스톡옵션뿐 아니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RSU 등 다양한 주식보상에 대해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지급액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미실현 잔액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여에 포함되거나 별도 항목으로 흩어져 있던 정보가 하나의 표로 통합되면서, 임원 보수의 실질 규모와 미래 보상까지 한눈에 드러난다.

개인별 공시 체계도 정교해졌다. 5억원 이상 임원의 보수 내역 아래에 주식보상 부여·행사 현황을 함께 배치하도록 해, 투자자가 특정 임원의 보수 구조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가능 수량, 미지급 물량, 시장가치 등 세부 항목까지 공개되면서 '숨은 보수'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시 기간 역시 확대된다. 기존 단년도 기준에서 3개년 비교 공시로 바뀌면서 임원 보수의 증감 추이와 기업 성과 간 관계를 시계열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수 총액도 급여, 상여, 주식보상, 기타소득 등으로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형식 변경을 넘어 지배구조 개선 신호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의 임원 보수는 '성과와 무관한 보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시장이 이를 직접 검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자본시장포럼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금투협, 'K-자본시장포럼' 출범

미래 10년 청사진 제시
산학연·업계 전문가 집결

금융투자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K-자본시장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자본시장포럼은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 제시를 목표로 장기 성장 전략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다. 자본시장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초 K자본시장본부를 신설하고,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과제 발굴과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포럼 출범을 준비해왔다.

포럼에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자본시장연구원, 기업, 증권업계, 학계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약 100명 규모의 전문가 그룹이 실무 협의체와 워킹그룹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공한다. /허정윤 기자

예탁원, 생성형 AI 업무시스템 고도화

지능형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

한국예탁결제원이 생성형 AI 기반 업무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내부 업무 전반에 AI를 접목한 '디지털 전환(AX)'에 속도를 낸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업무망 생성형 AI서비스 'AIWorks(아이웍스)'를 고도화해 지능형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AIWorks는 내부망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규정 검색과 코딩 지원 등을 수행하는 업무 포털로, 지난해 12월 금융권 유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번 고도화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승인에 따라 추진되는 후속 조치다.

핵심은 AI 성능과 활용 범위 확대다. 예탁결제원은 기존 GPT-4o 기반 모델을 최신 AI 모델로 업그레이드해 질의 응답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였다. 동시에 AIWorks와 내부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표준 API를 구축해 업무 확장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특히 사내 메일과 메신저 등 디지털 업무환경(DWP)과 AI를 연계한 점이 눈에 띈다. '스마트 메일'과 직원용 챗봇을 도입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임직원이 일상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보안과 통제 기능도 함께 강화됐다. 개인정보 입력 차단, 로그 관리 등 단일 통제 체계를 적용해 내부망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정윤 기자

신영증권,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앞장

금정호 대표이사 사장 챌린지 동참

금정호 신영증권 대표이사 사장(맨 가운데)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신영증권

신영증권은 금정호 대표이사 사장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범사회적 실천 운동으로,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금 사장은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릴레이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정준호 SK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추천했다. /신하은 기자